

해고자 원직복직 쟁취!

박주석(동서발전) 1994.12.01 해고

1994년 전력노조 중앙집행부중 일부의 정년이 도래하였으나 자신들의 임기까지 정년을 연장하는 합의와 함께 퇴직금제도 개악 시킴. 이에 울산화력 부지부장으로서 퇴직금제도 개악 반대투쟁을 주도했으며, 이 과정에서 지배개입하던 회사간부에게 항의한 대화를 폭언 했다고 몰아서 해고시킴. (해고 당시 전력노조 울산화력지부 부지부장)

김동성(서부발전) 2001.03.30 해고

전국전력노조의 『전력산업구조개편에관한법률』 제정 직권조인 이후 2001년 발전사가 한전으로부터 분사되는 과정에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민주노조 설립을 시도함. 이에 사측이 1시간 단위로 감시하여 근무태만이라는 이유로 표적 해고됨.

※ 당시 회사는 전력노조의 모든 지부장들에게 실질적으로 전임을 보장했음.

(해고 당시 전력노조 태안화력지부 지부장)

이호동(동서발전) 2002.03.11 해고

발전소 매각반대 2002년 2.25파업을 주도로 해고됨. (해고 당시 발전노조 위원장)

김인(남동발전) 2002.03.11 해고

발전소 매각반대 2002년 2.25파업을 주도로 해고됨. (해고 당시 발전노조 사무처장)

조준성(남동발전) 2002.01.30 해고

2001년 전국전력노조 삼천포화력지부 전임지부장 인사발령 특혜에 대한 지속적 문제제기 과정에서 표적감사를 받음.

표적감사 중 감사과장에게 재떨이로 폭행을 당하여 고소를 했으나 오히려 무고죄로 역고소당한 후 추가 감사를 통해 해고됨. 사규에 따라 재심을 청구하던 중 2002년 2월 25일 발전소 매각반대 파업에 참여함. 이미 해고된 상태에서 업무방해로 고소당하였으며 구속된 상태에서 징계재심으로 해고 확정됨. (해고 당시 발전노조 삼천포화력지부 대표대의원)

윤유식(동서발전) 2006.11.09 해고

발전회사 통합요구 2006년 9.4파업후 조합원들에 대한 무분별한 징계에 대해 노조 부위원장으로 항의하기 위해 본사 방문. 회사 간부와 의 대화과정에서 언쟁하고 가벼운 신체접촉이 있었던 것을 폭력으로 몰아서 해고시킴.

(해고 당시 발전노조 동서발전본부 본부장)

이준상(남동발전) 2006.11.24 해고

발전회사 통합요구 2006년 9.4파업 주도로 해고됨. (해고 당시 발전노조 위원장)

전승욱(남동발전) 2006.11.24 해고

발전회사 통합요구 2006년 9.4파업 주도로 해고됨. (해고 당시 발전노조 조직쟁의실장)

남성화(남동발전) 2009.10.14 해고

이명박 정부의 불법적인 공기업선진화 정책 반대, 영흥화력 직원들 처우개선 요구,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함. 이에 근무태만이라는 이유로 표적 해고시킴.

※ 당시 남동발전은 실질적으로 노조의 모든 지부장들의 업무를 최소화하고 현장활동 할 수 있도록 보장했음. (해고 당시 발전노조 영흥화력지부 지부장)